



‘노력하는 천재’ 김도영, 가는 길이 곧 역사



월간 ‘10-10’ 이어 최소타석 사이클링 히트 기록
최원준 “미쳤다... 혼자 비디오 게임 하는 거 같아”

말이 필요 없는 ‘야구 천재’ 김도영(사진)의 활약이다.

지난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NC의 경기에서 김도영은 생애 첫 사이클링 히트를 만들었다. 1루타를 시작으로 2루타 3루타에 이어 홈런까지 순서대로 만든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였다.

KBO 역사상 두 번째, 4타석 만에 기록된 최소 타석 또 최연소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기록이었다. ‘야구 천재’ 김도영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 날이기도 했다.

두 번째 타석에서 선두타자로 나와 2루타를 기록한 김도영은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 실패했다. 3-0의 아슬한 리드가 이어졌던 만큼 득점을 더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던 김도영은 세 번째 타석에는

‘3루타’를 칠 결심을 했다.

그리고 5회 1사에서 세 번째 타석에 선 김도영은 좌중간으로 공을 보낸 뒤 특유의 스피드로 3루에 도달하면서 3루타를 완성했다.

사이클링 히트에 가장 어려운 3루타까지 완성한 김도영은 6회 4번째 타석에서는 ‘기연치’ 담장을 넘겼다. 배재환의 5구째 슬라이더를 잡아당기면서 좌중간 담장을 넘기고,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했다.

모든 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드라마 같은 사이클링 히트였다.

김도영의 기록 순간을 지켜본 선배들의 반응은 “미쳤다”였다. 야구가 아니라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 같다는 농담도 나왔다.

최원준은 “플레이스테이션 하는 것 같았다. 혼자 게임하는 것 같았다. 게임기 가지고 조작하는 것 같다. 너무 쉽게 해서 무슨 말을 못 하겠다. 굳이 더

할 말이 없다”며 감탄사를 쏟아냈다.

“대단하다”며 말을 잊지 못한 김태군은 “몰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한다. 부상 없이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김도영은 동성고 시절부터 KIA가 팀의 미래로 점찍어 놓은 자원이었다. 놀라운 주력에 파워를 겸비하면서 이종범과 김주찬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재능을 보여줬다.

하지만 프로에서 부상이 이어졌고, 마음 고생을 하기도 했던 김도영은 ‘믿음’ 속에 가지고 있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마음먹은 대로 야구를 하면서 남다른 실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김도영과 그를 잘 아는 이들은 ‘노력하는 천재’라고 말한다. 타고난 실력에 피나는 노력이 더해진 오늘이라는 게 김도영에 대한 평가다.

김도영의 신인 시절을 팀 동료로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현재의 모습을 해설위원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나지완 해설위원은 “입단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본 김도영은 진득하다. 프로에 입단하면 들뜬 모습들이 있는데 운동하는 모습부터 달랐다. 기라성

같은 선배들 사이에서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 준비를 했고, 경협이 쌓이면서 KBO리그의 최고의 선수가 된 것 같다”며 “처음부터 실력은 남달랐다. 연습 때부터 배팅을 칠 때 이런 모습, 결이 달랐다. 연습 때부터 타구질이 좋았다. 경험만 쌓이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천재가 아니다. 노력하는 천재다. 게으른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타이거즈를 상징하는 홈런타자였던 나지완은 김도영의 장타실력에 대해서도 실력과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나지완은 “홈런을 많이 친다기보다는 핫코너에서 한 타석 한 타석에서 집중하는 것 같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정말 좋다 보니까 그게 결과물로 나오는 것 같다”며 “준비가 돼서 지금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들뜨지 않고 진득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준비했다. 부상 없이 자기만의 루틴을 마련해 이런 여름철 경기 감각적인 부분 신경 쓴다면 지금 이상의 것을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김태군 일침에 경기 집중...완투 가능”

시즌 2번째 완투...NC에 8-1승

“그렇게 던지려면 내려가.”

KIA 타이거즈 양현종은 지난 23일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10차전에서 1회부터 9회까지 나홀로 마운드를 책임지면서 시즌 두 번째 완투승을 장식했다.

지난 5월 1일 KT전에서도 9이닝 1실점을 기록했던 양현종은 이번에도 95개의 공으로 27개의 아웃카운트를 채우면서 다시 한번 완투승 기록을 남겼다.

이날 6회초 서호철에게 허용한 솔로포가 유일한 실점. 이 장면 이후 포수 김태군은 양현종에게 쓴 소리를 했다.

김태군은 “홈런 맞고 나서 그렇게 던지려면 내려가라고 했다”고 웃었다.

이유는 ‘이닝’이었다.

김태군은 “이닝을 생각하니까 전력으로 안 던지게 된다. 에이스가 됐든 이제 막 2군에서 올라온 선수가 됐든 한 타자 한 타자 전력으로 해야 한다”며 “공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점수 차가 많이 나도 야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 충분히 더 빠르게 던질 수 있는데 전력으로 안 하면 야수들, 벤치에서 보는 팀원들 힘이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닝을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이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전력으로 한 타자씩 집중하다 보면 이닝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게 김태군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6회 아쉬운 실점은 있었지만 양현종은 이후 매 이닝에 집중하면서 8회를 넘어 9회까지 마운드에 오를 수 있었다.

일요일 등판까지 4일턴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양현종은 ‘이닝’ 책임감을 이야기하면서 벤치의 만류에도 9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그리고 ‘대투수’에게 일침을 가했던 김태군과 욕심을 냈던 양현종은 완투승이라는 해피엔딩을 맞았다.

앞선 등판에서는 승리투수 요건에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강판됐었던 만큼 양현종에게는 더 의미는 완투였다.

양현종은 “지나간 것은 잊고 경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타자들이 점수를 잘 뽑아줬고 수비도 잘 해주면서 긴 이닝을 던질 수 있었다. 템포를 빠르게 하고 공격적으로 피칭한 게 좋은 결과로 나왔다”며 “8회까지 던졌으니 9회까지 해서 중간투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범호 감독은 “7회 던지고 바꾸려고 했는데 이



23일 광주야구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KIA 선발투수 양현종이 9이닝 1실점 완투승을 거두고 포수 김태군과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닝에 대한 자기만의 야구관이 확실한 선수다. 80구 언저리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더 던지고 싶은 열망이 강했다”며 “주자 나가면 바꾸겠다는 전제 조건을 뒀는데 못 바꾸고 끝까지 갔다. 고맙다”고 웃었다.

한편 양현종이 9회까지 마무리하면서 KIA는 사이클링 히트와 완투승을 동시에 기록한 세 번째 팀이 됐다. 이날 김도영이 4타석 만에 1루타, 2루타,

3루타에 이어 홈런까지 기록하면서 사이클링 히트 주인공이 됐다.

앞서 1982년 6월 12일 삼성 오대석과 성낙수가 나란히 사이클링 히트와 완투승을 달성했고 1987년 8월 27일에는 OB 이강돈이 사이클링 히트, 손문곤이 완투승을 동시에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승우 “전북에서 대한민국 최고 될 것”

전북현대에 새등지

K리그의 ‘슈퍼스타’ 이승우가 전주성에 자리를 잡았다.

전북현대가 24일 수원FC 이승우(26·사진)의 영입을 발표했다.

세계 최고의 클럽 FC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이승우는 화려한 발재간과 뛰어난 골 결정력을 앞세워 한국 축구의 미래로 주목받은 ‘특급 기대주’였다.

이후 바르셀로나를 거쳐 엘라스 베로나(이탈리아), 신트트라위던VV(벨기에)에서 활약한 이승우는 2022년 수원FC 유니폼을 입으면서 K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첫해 35경기에서 나와 14골 3도움을 남기며 성공적으로 K리그에 안착한 그는 지난 시즌에는 36경기에서 10골 3도움을 기록하는 등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다.

올 시즌에도 18경기에 출전해 10골 2도움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이승우는 서울 일류체코(12골), 인천 무고사(11골)에 이어 리그 득점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뛰어난 활약으로 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1경기 토트넘 홋스퍼와의 경기에서 나설 팀 K리그를 뺀 ‘팬 일레븐’ 팬투표에서 4만8086표를 받아 전체 후보 44명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 ‘슈퍼스타’의 면모도 과시했다.

이승우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 대표팀부터 역할을 한 그는 A대표팀으로도 11경기에 출전하는 등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55경기에 출전해 24골을 장식하고 있다. 2018년에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뛰면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올 시즌 하위권에서 고전하고 있는 전북은 이승우를 통해 공격 옵션을 넓히면서 ‘김두현호’의 반동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성에 입성한 이승우는 “전북현대에 대한민국 최고의 팀이다. 나도 이곳에서 녹색 유니폼을 입고 최고가 되겠다”며 “전주성의 열기와 팬들의 뜨거운 열정을 잘 알고 있다. 그 열정을 이제는 나에게 쏟아달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북은 골키퍼 정민기를 내주고, 강상운을 1년 임대 연장하는 조건으로 이병영을 영입을 성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순천제일고, 전국중고배구대회 우승

순천제일고 배구팀이 제57회 대통령배 전국중고배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제일고는 24일 전국중고배구대회 남고부 결승전에서 세트스코어 3-0(25-21, 25-23, 25-12)으로 현일고를 누른 뒤 당당히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번 대회 예선에서 현일고에 2-3으로 패했던 제일고는 결승에서 다시 만나 설욕전에 성공했다.

지난 제56회 대통령배 전국중고배구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쳤던 제일고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승 갈증을 풀었다.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펼쳐진 이번 대회는 전국 중등학교 73팀이 참여한 가운데 경남 통영체육관·충주체육관·통영중체육관·동원고체육관에서 남고부·여고부·남중부·여중부 경기로 진행됐다.

팀 우승을 이끌며 대회 세터상을 수상한 배준솔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다음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위치다. 체력적으로 약한 부분을 보

강하고 강점인 높이를 살려서 더 넓은 무대로 나갈 수 있도록 연말하겠다”고 전했다.

신장 196cm인 그는 지난 2023년 남자U19 대표팀에 선발돼 세계남자유스배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김남중 제일고 배구팀 감독은 “평소 학생들에게 ‘팀워크’를 강조하는 편이다. 혼자만 돋보이려 해서는 팀이 살 수 없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 게 배구”라며 “가장 고생해준 학생들이 가장 큰 공로자고,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지원이 더해져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지난해 총 3번 우승한 것에 비해 올해 우승이 없어 내심 격정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18세이하 남자부에서는 이세현(이하 3학년)이 최우수상, 배준솔이 세터상, 임태호가 공격상, 김해성이 리베로상을, 김남중 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신데렐라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5회 정기공연 | 콘서트 오페라
가족 오페라 **〈신데렐라〉**

일시 : 2024-07-26(금) 19:30
2024-07-27(토) 15:00,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
문의 : 062-412-2502

UBUNTU 박인성

GAC 공모전시 UBUNTU : 장원석·박일광

일시 : 2024-07-12(금) ~ 2024-08-1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